

▶ 달러/원 주간 전망

• 약달러에도 박스권인 원화..美 물가·국내 정치 불확실성 주목

서울, 3월10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 물가지표와 국내 정치 불확실성 등에 주로 초점을 맞추며 등락할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435-1470원이다.

트럼프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시장심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만, 유로와 엔 강세 확산 속 글로벌 달러는 4개월 최저치로 떨어졌다. 하지만, 위험선호가 동반되지 않은 달러 약세 현상에 대한 원화의 반응은 적극적이지 않다.

독일의 재정지출 확대 계획에 따른 채권금리 급등과 유로 강세, 일본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이 촉발시킨 엔 강세에 원화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약달러 여건이지만 달러/원 하방경직성을 강화하는 저점 매수세는 꾸준하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중에 발표되는 미국 물가지표 결과와 이에 따른 증시와 달러 반응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혹시나 예상을 뛰어넘는 물가지표 결과가 나온다면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심리를 압박할 위험이 있다.

로이터 전망에서는 1월 전월비 0.5% 오른 소비자물가지수가 2월에는 0.3%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미국 3월 미시간대 심리지수와 기대인플레이션 결과도 챙겨봐야할 변수다.

한편,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재확산될지도 관건이다. 법원의 구속 취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을 두고 여야 공방과 대립 구도가 가열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더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국내 정치 불안이 시장 재료로 다시 부상할지 주목된다.

달러/원 환율은 1450원을 중심으로 한 박스권 장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약달러를 면밀하게 쫓지 않는 경향을 보여 향후 강달러 재료에 한층 민감하게 반응할 여지도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환율은 그간의 박스권 상·하단 저항력을 테스트하며 향후 방향성을 고민하는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 주간 세계 이슈

⊙ 유럽의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수십 년이 있는가 하면 수십 년이 일어나는 몇 주가 있다는 블라디미르 레닌의 말이 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럽 전역의 빠른 전개가 이를 뒷받침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고립주의에 대한 두려움에 직면한 독일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가장 큰 정치적 변화 중 하나로 국방 및 인프라 지출을 확대할 계획이며, 유럽은 재무장을 위해 1,580억 달러를 빌려 정부에 빌려주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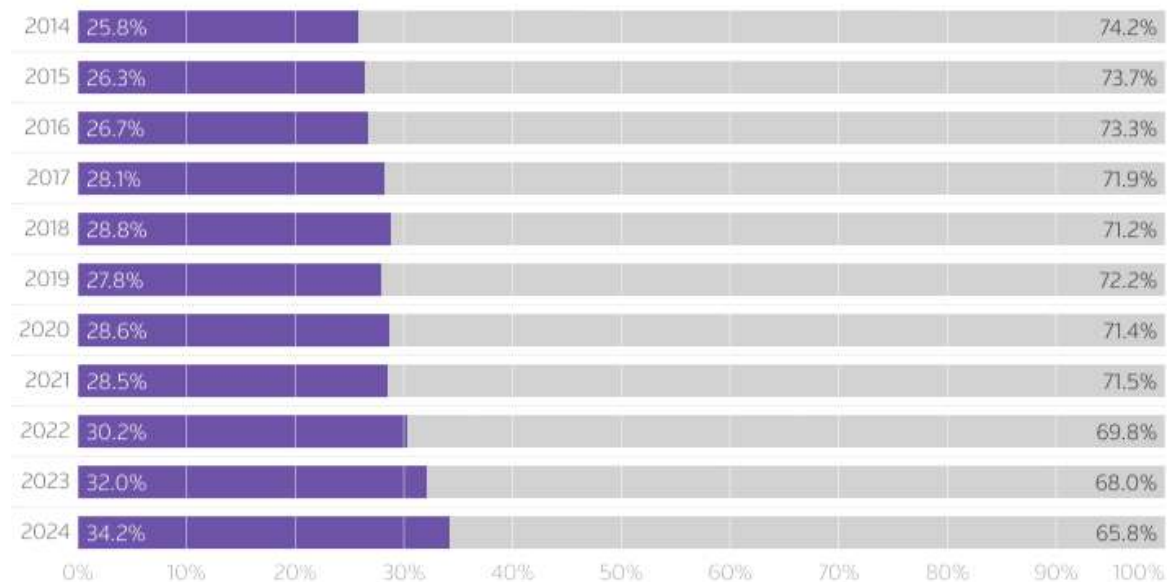
시장에서도 그 중요성을 놓치지 않고 있다. 유로와 주가는 급등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더 많은 지출이 더 많은 차입을 의미한다고 베팅하면서 독일 채권 수익률도 급등하고 있다.

갑자기 미국이 장기 추세 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더 이상 당연한 일이 아니다. 투자자들은 유럽 자산을 재평가하고 있고 미국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고 험난하지만 유럽 전역에 불어닥친 변화의 바람은 무시하기 어렵다.

European allies in NATO have increased their share of defence spending

The share of defence expenditure by European countries in NATO has increased from 26% in 2014 to 34% in 2024.

● NATO Europe ● U.S. and Canada



Note: Data for 2023 and 2024 are estimates.

Source: NATO | Reuters, March 6, 2025 | Sumanta Sen

⊙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트럼프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이의 관계는 우크라이나의 국제 채권을 휘젓고 있지만, 그 영향은 국경을 넘어 지역 전체 시장을 형성하고 흔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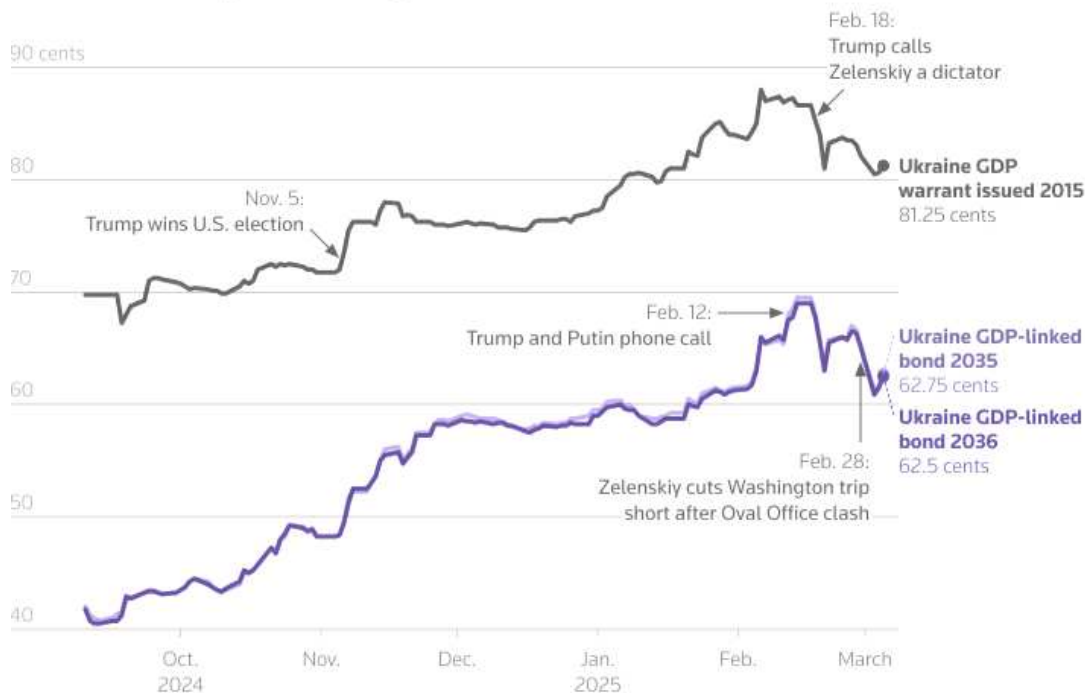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워트코프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적대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협정 틀을 논의 중이며 이번 주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 측과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평화 협정이 우크라이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전쟁 종식은 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바주카포' 차입과 채권 매각으로 차입 비용이 상승하면서 마이너스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를 여러 차례 경험한 이 지역의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폴란드 중앙은행은 수요일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금리 인하는 2025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트럼프-푸틴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럽 재무장관들은 화요일에 만나 러시아의 침략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Ukraine debt whipsaws on Trump

International bonds and a GDP-warrant issued by Ukraine have been on a rollercoaster amid tensions between Kyiv and Washington.



Source: LSEG Datastream | Reuters, March 6, 2025 | Pasit Kongkunakornkul

⊙ 성장 우려

미국 경제지표 약세와 무역 긴장 고조로 소비자 신뢰와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서 글로벌 성장 우려가 다시 시장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수요일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반면, 미국의 2차 지표도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 캐나다와 멕시코산 대부분의 상품에 부과된 25%의 관세를 중단했지만, 그의 변동하는 무역 정책은 인플레이션과 성장에 대한 우려를 계속 부채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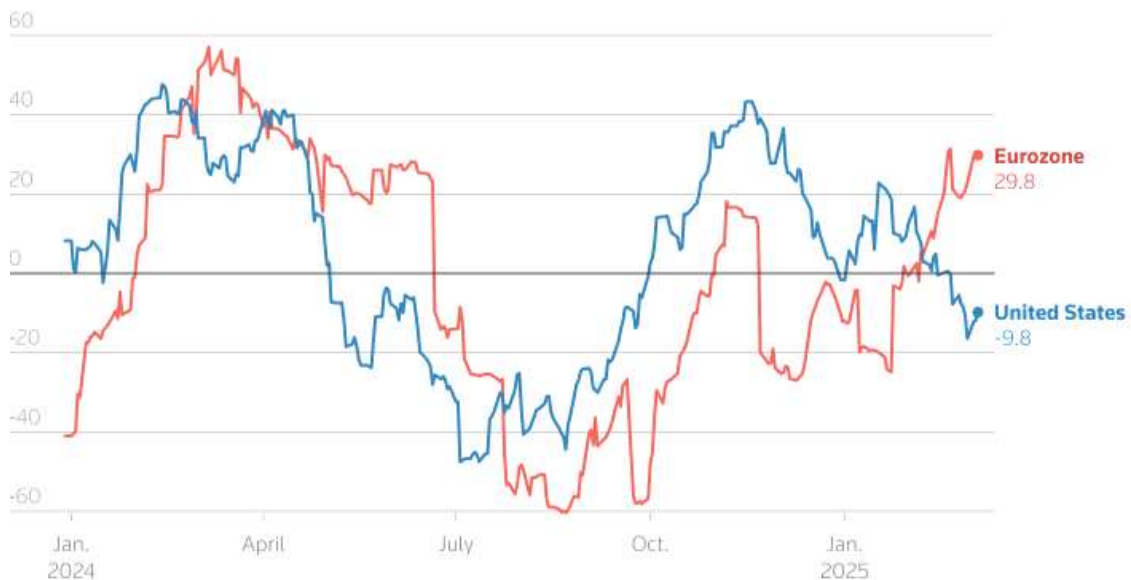
모간스탠리는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예정대로 부과되면 향후 분기 미국 성장률이 0.7~1.1%포인트 하락하고 캐나다 성장률이 2.2~2.8%포인트 하락하며 멕시코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브렌트유는 2021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안전자산인 엔화는 5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나스닥은 5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Global recession risk

Weakening U.S. economic data and growing trade tensions hurt consumer confidence and business activity

Citigroup Economic Surprise Index



Note: Data till March 5, 2025

Source: LSEG Datastream | Reuters, March 6, 2025 | Vineet Sachdev

⊙ 美 CPI

수요일 미국 소비자 물가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무역 파트너에 대한 관세가 국내 물가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여전히 따뜻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부채질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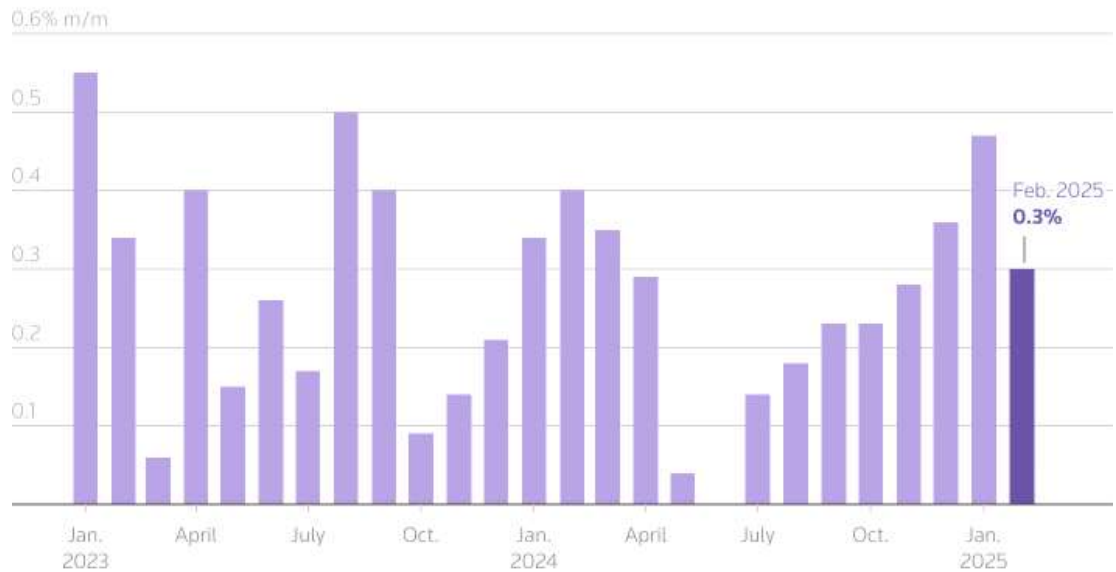
로이터 조사에 따르면 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월 CPI는 미국인들이 상품과 서비스 비용 상승에 직면하면서 0.5% 상승하여 2023년 8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한번의 지표 호조는 올해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최근의 베팅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트레이더들은 최근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세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투자자들은 또 무역 정책과 관세가 유지될 경우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All eyes on US inflation

Economists polled by Reuters expect inflation in the U.S. to have risen by 0.3% in February compared to the previous month.



Source: LSEG | Reuters, March 6, 2025 | Sumanta Sen

① 中 관세 대응

트럼프의 관세 부과 대상 목록에서 중국은 특히 자국 시장이 격변기를 얼마나 잘 극복했는지에 있어 눈에 띈다.

중국인민은행은 위안화를 달러 대비 안정적인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이끌었고, 홍콩 항셱지수는 올해 21% 상승하며 글로벌 주요 시장 중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리고 이는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제공한 구제책 없이도 가능한 일이다.

지난 수요일 민간 소비와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더 많은 부양책을 약속하며 일주일 간의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시작한 중국은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주말 발표된 인플레이션 수치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딥시크가 세계를 놀라게 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본격적인 인공지능 에이전트 마누스가 출시되는 등 중국 스타트업의 행보가 계속 주목받고 있다.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흔들리는 美 증시..스테그플레이션 우려 저울질

뉴욕, 3월10일 (로이터) - 경제 성장 둔화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해 투자자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에 발표될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미국 증시를 더욱 뒤흔들 수 있다.

지난 금요일 상승에도 불구하고 벤치마크 S&P500 지수.SPX는 6개월 만에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 지난 목요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IXIC는 12월 사상 최고치 대비 10% 이상 떨어져 몇 달간 조정세를 이어가고 있음이 확인됐다.

투자자들은 전 세계의 급격한 정책 변화와 씨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시행하면서 경제에 대한 우려가 악화됐다. 또한, 독일의 깜짝 지출 계획으로 시장이 흔들리면서 벤치마크인 독일 채권은 매도세가 나타났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의 한 가지 희망은 올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잠재적 성장 약화를 감안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오는 수요일의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보고서가 연준이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수준이라면 이러한 기대는 무너질 수 있다.

올스프링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브라이언트 밴크롱카이트는 "CPI 상승은 시장을 놀라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시장은 여전히 연준이 구출하길 원한다...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기대가 낮아질 때까지 연준은 구속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2023년 8월 이후 월간 최대 상승폭인 0.5%를 기록한 1월보다 더 뜨거운 CPI 결과를 염두에 두고 있다. 로이터 여론 조사에 따르면 2월 CPI는 0.3%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 보고서는 3월 18~19일에 열리는 연준의 회의 전에 발표되는 마지막 주요 데이터 중 하나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25%~4.5%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금리 선물은 올해 12월까지 약 70bp 포인트의 추가 완화를 예상하고 있다.

BNY 미주 거시 전략가인 존 벨리스는 "증시는 CPI 상승을 반기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연준의 완화 기조가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벨리스는 CPI가 상승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일자리 증가율은 2월에 회복세를 보였지만, 혼란스러운 무역 정책과 연방 정부의 지출 삭감으로 한때 회복세를 보였던 노동 시장에 균열이 나타났다.

이번 주말 정부 기관의 부분적인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지출 법안을 놓고 의원들이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시장의 초점은 워싱턴에도 맞춰질 것이다.

무역 정책도 여전히 주목받고 있다.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연방 인력 감축과 같은 무역 및 기타 문제에 대한 공격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

시장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지수.VIX는 지난 주 급등해 작년 말 이후 최고

치를 기록했다.

BCA 리서치의 수석 미국 주식 전략가인 아이린 툰켈은 "경제 및 무역 정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예나 기자)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이벤트

3월10일 (월)

- ⊙ KDI: KDI 경제동향(2025.3) (12:00)
-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12:00)
- ⊙ 한국은행: 신성환 위원 씨티은행 면담

3월11일 (화)

- ⊙ 관세청: 3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

3월12일 (수)

- ⊙ 통계청: 2025년 2월 고용동향 (08:00)
- ⊙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2025년 2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12:00)
- ⊙ 한국은행: 2025년 2월중 금융시장 동향 (12:00)
- ⊙ 한국은행: 2025년 2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12:00)
- ⊙ 한국은행: 신성환 위원 골드만삭스 면담

3월13일 (목)

- ⊙ 금융감독원: 원장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토론 (09:30)
- ⊙ 기획재정부: 2025년 3월 재정동향(1월말 누계기준) (10:00)
- ⊙ 한국은행: 금통위 본회의(비통방) (10:00)
- ⊙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5년 3월) (12:00)

3월14일 (금)

- ⊙ 한국은행: 2025년 2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 (06:00)
- ⊙ 금융감독원: 2025년 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06:00)
- ⊙ 한국은행: 총재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2025 (09:20)
- ⊙ 기획재정부: 2025년 3월 최근 경제동향 (10:00)
- ⊙ 한국은행: 장용성 위원 남덕우 기념사업회 토론 (14:00)

(문윤아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3월10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치	이전 수치
3월10일	08:50	일본	경상수지 JPY	1월	-230.5B	1,077.3B
3월10일	18:30	유로 존	센틱스지수	3월		-12.7
3월10일	23:00	미국	고용추이	2월		108.35
3월10-17일		중국	총통화(M2) 공급 YY	2월	7.0%	7.0%
3월10-17일		중국	신규 위안화 대출	2월	1,275.0B	5,130.0B
3월10-17일		중국	FDI (YTD)	2월		-13.40%
3월11일	08:30	일본	가계지출 YY	1월	3.6%	2.7%
3월11일	08:50	일본	GDP 수정치 QQ 연율	4분기	2.8%	2.8%
3월11일	19:00	미국	NFIB 기업낙관지수	2월		102.8
3월11일	23:00	미국	JOLTS 구인건수	1월	7.750M	7.600M
3월12일	08:50	일본	기업상품가격지수 MM	2월	-0.1%	0.3%
3월12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3월3일 주간		242.2
3월12일	21:30	미국	CPI MM, SA	2월	0.3%	0.5%
3월13일	03:00	미국	연방예산	2월		-129.00B
3월13일	19:00	유로 존	산업생산 MM	1월	0.6%	-1.1%
3월13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 수	3월3일 주간		221k
3월13일	21:30	미국	PPI MM	2월	0.3%	0.4%
3월14일	23: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 수 예비치	3월		64.7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3월10일 (월)

⊙ 유로그룹 회의..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참석

3월11일 (화)

⊙ EU 경제금융위원회 회의

3월12일 (수)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연례 ECB 컨퍼런스에서 연설 (오후 5시45분)

⊙ 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결정 발표 (오후 10시45분)

3월13일 (목)

⊙ 연준, 2024년 4분기 가계 재정 관련 보고서 발표 (14일 오전 1시)

3월14일 (금)

⊙ 휴장국가: 인도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단독)-中, 전국적으로 RISC-V 반도체 사용 촉진 위한 정책 발표 예정

베이징/상하이, 3월4일 (로이터) - 중국이 서방 소유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함에 따라 중국이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오픈 소스 RISC-V 반도체 사용을 장려하는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두 명의 소식통이 전했다.

소식통들은 RISC-V 반도체 사용 촉진에 대한 정책 지침이 빠르면 이번 달에 발표될 수 있지만 최종 날짜는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또 중국 사이버 공간 관리국, 중국 산업 정보 기술부, 과학 기술부, 중국 국가 지적 재산권 관리국을 포함한 8개 정부 기관이 공동으로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들은 정책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고, 4개 부처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RISC-V는 스마트폰에서 인공지능 서버용 CPU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칩을 설계하는 데 사용되는 오픈 소스 기술이다.

이 기술은 미국 기업인 인텔INTC.O와 AMDAMD.O가 주도하는 x86 포함 기술과 소프트뱅크그룹 소유

Arm홀딩스 9984.T 에서 개발한 Arm 등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반도체 아키텍처 기술과 경쟁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국가 기관과 연구 기관이 지정학적으로 중립적이라고 보고 RISC-V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중국 반도체 설계자들은 저렴한 비용에 매력을 느끼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정책적으로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기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이 커지면서 미국에서는 중국에서의 사용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중국 최대의 영리 RISC-V 지적 재산권 제공업체로는 알리바바의 9988.HK 쉬엔티에(XuanTie)와 반도체 설계업체들에게 상용 RISC-V 프로세서를 판매하는 스타트업 뉴클레이시시스템테크놀로지가 있다.

지난주 쉬엔티에가 주최한 RISC-V 관련 행사에 참석한 업계 임원들은 중국 AI 스타트업의 모델이 저전력 칩에서 효율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딥시크의 인기가 RISC-V의 채택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사 기간 동안 ICT 장비 공급업체인 차이나 모바일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의 매니저인 선 하이타오는 AI와 딥시크를 사용하려는 소규모 기업은 RISC-V 아키텍처로 설계된 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000만 위안에 달하는 RISC-V 솔루션의 가격이 엔비디아나 화웨이의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